



1. 개막축하공연
2. 한대수 시장과 홍보대사가 개막을 선언하는 모습
3. 민재기 인협 회장 등 내빈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4. 고인쇄박물관과 일본 돗판인쇄 박물관의 자매결연 체결 장면
5. '직지' 붓글씨 대회
6. 구텐베르크 특별전 개막식 테이프 컷팅장면
7. 구텐베르크 특별전에 전시된 전시품들
8. 고인쇄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 2004 청주직지축제

## 9월 2일부터 4일간 다양한 볼거리 제공

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인쇄문화협회가 후원한 세계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기념하는 '2004 청주직지축제'가 9월2일부터 4일간 청주시 예술의 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지난 달 2일 오후 7시 예술의 전당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한 대수 청주시장, 이원중 충북도지사, 홍재형의원, 직지대사 박인환씨,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충원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서동욱 충북인쇄조합 이사장, 예바 구텐베르크 박물관장 등 내빈과 1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직지의 위대함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날 개막식은 KBS에 생방송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 온 사절단의 축하공연과 노무현대통령의 영상메시지, 직지 촛불점화, 홍보대사 위촉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2004 청주직지축제는 '소통(Communication)'을 주제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를 위해 이번 축제는 불거리, 배울

거리, 즐길거리 등 크게 3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로 10여개의 세부행사로 펼쳐졌다.

주요 행사로는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탄생한 직지를 기념하는 고려퍼레이드, 오페라 직지 공연, 직지콘서트, 직지동화구연대회, 직지문화상품특별전, 금속활자재현, 옛책의 아름다움전, 줍쌀책 전시, 직지학습관운영, 학술회의 등이 개최됐다. 한대수 시장은 "직지는 청주를 국제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라며 "올해 행사는 직지의 중요성과 정보전달 의미부여를 통한 차별화 시도로 수요자 중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최창호)은 이날 오후 3시 일본 돛반인쇄주식회사 인쇄박물관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유창준 국장>